

코믹→액션→감동...올해 설극장가 다양한 장르 풍성



올 설에는 코믹부터 액션,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난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설 연휴가 이어진다. 올해 설에는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 액션 영화 '앵반'(감독 한준희) 그리고 감동 드라마 '중인'(감독 이한)까지 다양한 한국영화가 관객을 찾는다. 제임스 카메론 제작의 블록버스터 '알리타:배틀엔젤'(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즈)를 비롯해 '드래곤 길들이기3'(감독 딘 데블로이스), '레고부비2'(감독 마이크 미첼) '극장판 헬로카봇:오파로스 섬의 비밀'(감독 최진규 김진철)등 애니메이션이 개봉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관객들을 만난다.

먼저 '극한직업'은 1월 23일 개봉, 이병헌 감독의 '말맛 살린 코미디'를 선보인다.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장업한 '마약차진'이 맞잡으로 임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까지 5명의 배우들이 마약반의 '복수리 5형제'로 활약하며 팽팽 터지는 웃음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내 아내의 모든 것', '7번 밤의 신물' 등으로 찰진 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던 류승룡은 이번 작품에서 좀비 형사로 활약하며 특유의 매력에 호응을 맞춘다. 조성석은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시삽가 역할로 데뷔 후 첫 악역을 선보이게 된다. 여기에 충무로 대표 연기와 배우인 열정 아 전혜진을 비롯해 손석구 김기범까지 신선한 배우들이 가세해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설 연휴가 지나면 관객에게 감동을 전할 영화 '중인'이 온다. '중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정우성이 변호사 순호 역할을 맡고, 김향기가 사건의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 역할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다. '더 킹'의 차세대 검사장 후보 한강식, '강철비'의 북한 최정예요원 엄철우 등 최근 신 스텝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던 정우성은 '중인'에서 인간미 불어넣는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김향기는 자폐 소녀 역할을 맡아 순수한 모습으로 관객에게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과 김향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며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소통해 나가는 특별한 호흡을 선보인다.

설극장가 다양한 한국영화가 준비돼있는 가운데, 외화들도 가세해 더욱 풍성한 극장가를 만든다. 가족 관객을 노린 한국과 미국의 애니메이션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알리타:배틀엔젤'이 관객을 만난다.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 '드래곤 길들이기3'과 한국 애니메이션 '극장판 헬로카봇:오파로스 섬의 비밀'이 나란히 1월 31일 개봉한다. 이어

극한직업·앵반·중인·알리타·레고부비2 등

이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영화다.

공효진 류준열 조성석 주연의 범죄 액션영화 '앵반'도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0일 공개 된다. '앵반'은 교통사고계 뺑소니집단반의 출입말로, 통제불능 스피드광 사업가를 쫓는 뺑소니 집단반 '앵반'의 고군분투 활약을 그린다. 뺑소니민을 다루는 경찰 내 조직인 뺑소니 집단반 '앵반'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이나타운'의 한준희 감독 작품으로 한국형 카 레이싱 액션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공효진이 터프한 엘리트 경찰로 류준열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지만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경찰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조성석은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시삽가 역할로 데뷔 후 첫 악역을 선보이게 된다. 여기에 충무로 대표 연기와 배우인 열정 아 전혜진을 비롯해 손석구 김기범까지 신선한 배우들이 가세해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설 연휴가 지나면 관객에게 감동을 전할 영화 '중인'이 온다. '중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알리타: 배틀엔젤'이 설연휴 당일인 2월 5일 또 다른 미국 애니메이션 '레고부비2'가 2월 6일 줄줄이 관객을 만난다.

국내에서 300만 관객을 모은 '드래곤 길들이기'의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인 '드래곤 길들이기3'는 바이킹 족장으로 거듭난 히킵과 그의 영원한 친구 루슬리가 누구도 찾지 못했던 드래곤의 파다리아 하든월드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모험을 담았고, '극장판 헬로카봇:오파로스 섬의 비밀'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세상을 정복하려는 외계인들에 맞선 차탄과 동물카봇들의 운명을 건 대결을 그렸다. '레고부비2'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돌아왔다. 크리스 프랭, 채닝 태이텀, 마크 로비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한 '알리타:배틀 엔젤'은 시지 26세기 모두가 감탄하는 공중도시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중도시로 나뉜 세상을 배경으로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이처럼 재미, 액션, 감동을 모두 담은 한국영화와 가족 애니메이션, 블록버스터가 어우러진 외화가 관객을 만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설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영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종영 '붉은달 푸른해', 폭력에 매몰되지 않은 메시지

극본, 연출, 배우의 3박자가 꼭 맞아떨어진 수작이었다. '붉은 달 푸른 해'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종영했다.

16일 밤 MBC 수목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극본 도현정·연출 최정규)가 31, 32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붉은 달 푸른 해'는 의문의 아이, 의문의 사건과 마주한 한 여자 차우경(김선아)이 시(詩)를 단서로 진실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를 살인으로 단죄해 온 연쇄살인마 '붉은 울음'의 실체가 밝혀졌다. 차우경의 환영에 등장하던 녹색 옷 소녀의 정체도 드러났다.

붉은 울음은 차우경의 선배인 정신과 의사 윤태주(주석태)였다. 윤태주는 과거 20년 만에 친동생인 이은호와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만나게 됐고, 이은호의 불면증을 치료하던 중 보육원에서 그가 겪은 끔찍한 성적 학대를 알게 됐다. 윤태주는 분노해 이은호와 손을 잡았고, 피해 아동을 상담하며 아이들의 기억을 들여다 본 윤태주가 타격을 설정하고 살인을 계획하면 이은호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단해 왔다.

차우경은 윤태주의 치료를 통해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과 마주했다. 새어머니 진옥(나영희)이 어린 시절 자신이 친동생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옥의 문을 연 차우경은 결국 집 밖으로 밀려 불친 친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 차우경은 망치를 들고 진옥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환영으로 나타난 친동생이 그런 차우경을 저지했다.

이후 차우경은 진옥을 미끼로 진짜 붉은 울음을 유인했다. 윤태주는 직접 살인을 하기 위해 나섰지만 차우경이 놓은 덫에 걸렸다. 감지현(이이경), 진수영(남규리)에게 체포 명령이 놓인 탓에 걸렸다. 감지현(이이경), 진수영(남규리)에게 체포 명령이 놓인 탓에 걸렸다. 감지현(이이경), 진수영(남규리)에게 체포 명령이 놓인 탓에 걸렸다.



었다. 진옥은 공소시효 민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학대를 자행했음에도 홀가분하게 여생을 살게 된 진옥을 보며, 차우경은 '나에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단죄를 포기했다. 씁쓸한 현실을 은유한 결말이었다.

'붉은 달 푸른 해'는 극 초반부터 엔딩까지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를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동시간대 방영된 SBS '황후의 품격', tvN '남자친구' 등에게 화제성이 밀리며 5%대 시청률을 기록, 수치로만 따지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지만 시청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품성 높은 구성으로 "한 회도 버릴 회자가 없는 드라마"라는 평을 받으며 마니아 시청자층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몰입감 넘치는 극본과 연출을 토대로 배우들의 열연이 만개하며 '월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다. 비올라(이이경)의 비밀을 집필하며 스릴러 장르에 두각을 드러냈던 도현정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몰 온 필력을 뽐냈다.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인용해 이야기 적재적소에 녹여냈다. 마지막까지 극적 반전을 놓치지 않고 장르적 특성을 극대화 한 점도 돋보였다.

연출은 장르적 특성이나 사회비

판이라는 목적에 매몰되지 않은 담백한 연출로 작품에 품격을 더했다. 범죄의 현장을 진인하고 자극적으로 그리지는 대신 은유와 암시를 통해 최소한으로 묘사했다. 특히 '시를 읽게 하며 위로해 요구했다'는 내용의 짧은 대사만으로도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이은호의 과거사를 풀어내는 세련된 연출, 마지막회 말미 교차로 흘러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 등이 그랬다. 폭력을 전시키는 대신 피해자들의 모습을 조명하며 이들의 용타를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외려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감성이라는 이번 작품을 통해 '병 불타진'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과 환영을 겪으며 느끼는 우울과 분노, 공포부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끔찍한 과거와 직면하는 과정까지 표현해 나아가 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재우를 입은 양 소화했다.

전작에서 연기했던 형사 캐릭터와는 다른 길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형사를 그려낸 이이경, 어린 시절 폭력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찰이 된 형사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연기한 남규리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아이돌 그룹 비스의 멤버 차하연은 환골탈태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해 긴 세월 고통 받으며 살인마로 변하게 된 이은호 캐릭터를 선한 용모 속 서늘한 인상을 활용에 섬세하게 표현, '연가풀'이라는 수식어를 뛰어 넘는 발군의 연기를 펼쳤다.

이소라, 22일 새 싱글 '신청곡' 발매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는 비가 내리는 날 타차 위에 놓여진 엔틱한 느낌의 라디오와 흰 머그컵의 모습이 감성적으로 담겨 있다. 동시에,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의 신곡 일부도 함께 공개되며 이소라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신곡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 라디오를 통해 가수 윤도현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와 더욱 이목을 끈다. 윤도현은 라디오 DJ처럼 '비가 오네요. 오늘도 그녀는 창가에 멍하니 있어서 하염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비만 오면 보고 싶어서 큰일입니다'라고 시연을 읽는 등 신곡의 타

배어나는 신곡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이소라는 17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2일 오후 6시 새 싱글 '신청곡' 발매 소식을 전하며 1차 티저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신곡 '신청곡'은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 밤 라디오 속 DJ가 읽어주는 시연을 들으며 나와 비슷한 이야기에 위로를 얻는 내용의 곡으로, 이소라의 독보적인 감성과 음색을 통해 포근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들 '신청곡'에 어울리는 잔잔한 나레이션으로 신곡 기대감을 높였다.

이소라는 지난해 10월 로이킵이 피쳐링에 참여한 싱글 'October Lover'를 공개, 가을 비림처럼 편안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로 리스너들의 가을 감성을 완벽히 때려시킨 바 있다.

'October Lover' 이후 약 3개월 만에 새롭게 들려주는 싱글 '신청곡'을 통해서도 외로움에 힘입어 했던 꺾어 봤을 순간을 이소라만의 어법으로 이야기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음력 12월 13일)

- ▶**띠별** 오해가 깊어 애인과 만나지 못했던 5, 9, 11월생은 오늘 연락이 온다. 남쪽을 약속장소로 정하면 데이트가 즐겁다. 그동안 오해도 풀리게 되는 격. 3, 7, 11, 12월생은 투자에 이익 있는 날. 검은색이 길함.
- ▶**성별** 남의 생활을 따라가지 마라.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생활을 하는 게 당신을 돋보이게 함을 잊지 말고 생업에 임할 때임. 공직자, 직장인은 매사 충분한 이해를 한 후에 일을 처리할 것. 문서에 하자 생기는 격.
- ▶**월령별** 혼돈이 가중돼 난폭한 성질이 돌출되기 쉬운 때다. 4, 9, 11월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는 문제를 일으켜 어렵게 만드는 격. 냉철하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 3, 6, 11월생은 우월한 태도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 ▶**계절별** 잡사가 많고 매우 바쁜 하루. 1, 6, 11월생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면 본래도를 벗어날 우려 있겠다. 전자통신장비, 화학, 조립 금속계, 사업가는 불황 속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날.
- ▶**음력** 3, 6, 11, 12월생은 자기과실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지 말라. 특히 이성 간에는 불리함을 받을 수니 겸허한 자기비판이 필요한 날이다. 1, 3, 6, 12월생은 그동안 골치 썩었던 부분 산 매매가 이루어질 운. 손해 보지 않겠으니 성사 시킬 것.
- ▶**생년** 결혼한 자는 임신이나 출산, 이혼자는 님을 만나는 격이지만 나이 차이로 고민하겠다. 2, 9, 12월생은 질투심을 죽이고 현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 연하의 남성과 사는 여성은 지금 느끼고 있는 대부분이 오해임을 알 것. 동쪽이 행운 방향.
- ▶**월령** 바, 자, 음 성씨는 당신이 빠진 길은 진정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금이 아니니 쉽게 허물어 질 수 있다. 2, 11, 12월생은 무슨 일든 상관없이 너무 쉽게 빠져 버리는 약점을 스스로 깨우칠 것.
- ▶**생년**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해서 안이한 생활소식에 빠져들면 발전이 없다. 3, 7, 12월생은 자기발전을 위해 좀 더 힘써야 할 때임. 10, 11, 12월생은 푸른 계절 웃음은 피할 것.
- ▶**월령**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 문제로 매사 힘들겠지만 3, 7, 12월생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화가 복으로 변한다. 행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6, 9월생은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의지할 상대가 없구나. 그러니 힘을 낼 것.
- ▶**생년** 내용만 충실하면 이제까지의 경험이나 미래의 성공을 뒷받침 해주니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2, 7, 12월생은 하던 일로 짜증과 피로가 겹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신을 갖고 용기낼 것. 북, 동쪽에 길이 열리니 힘내라.
- ▶**월령** 2, 5, 10, 12월생은 금전적 욕심으로 늘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노력하면 결과가 있지만 투기를 하면 더 큰 위험이 있고 손실 또한 따르게 된다. 3, 7, 12월생은 능력 이상에 이익이 따른다 해도 절대 과대평가 말라.
- ▶**생년** 한번 약속한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신임을 얻는 격. 1, 8, 12월생은 계획한 일 성취했다고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 당신의 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타인과 함께 일할 때 이익도 있음을 알고 행할 것.